

# 총선후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위축 전망

### 5월부터 지방도 주택대출 규제 강화... 보험세 이어질 듯 8월부터 LTV·DTI 조정과 함께 세계 경기 동향에 영향

부동산시장은 총선 후 대출 규제 여파 등으로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5월부터 지방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되는 데다 8월부터는 LTV·DTI 조정 등과 함께 국내는 물론 중국 등 세계 경기 동향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매수심리도 위축되며 전반적으로 매매시장은 보험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지역별로 입지에 따라 분양 성공 여부가 갈리는 양극화 현상도 예상된다. 건설업체들은 총선 이후 분양 물량을 대거 쏟아낼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들쭉날쭉 가능성 낮아**

총선 후 부동산시장이 크게 들쭉날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지적된다. 올해 4·13총선의 부동산공약은 기존의 정책의 재탕에 불과했다. 특히 개발·공급 정책보다 임대시장 안정화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총선 이후 부동산시장이 호황을 보이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김일 부동산연구소 리서치팀장은 "여야 모두 개발 정책보다 임대정책 위주를 위주로 공약을 제시했고, 지역별 세부공약 중에는 개발공약도 있었지만 대부분 재탕이었다"며 "더욱이 총선 공약이행률이 낮아 국민들이 이전처럼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번 총선 정책이 부동산시장

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총선으로 여야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관련 이슈의 의사결정 과정이 더디질 수 있다"며 "총선 이후 부동산시장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대출심사 강화·LTV·DTI 등... 금융 경제정책 변수**

총선보다는 금융정책과 경제여건이 부동산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된 데 이어 5월부터는 지방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올해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것처럼 지방의 매수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FB센터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은 "지방은 지난 2008년 8월 DTI가 폐지된 이후 약 8년 동안 딱히 금융규제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만큼 이번 심사강화로 실수요 매수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민간택지는 전매제한이 없는 데다 청약순위 자격 완화 등으로 수도권에 비해 투자를 위한 규제는 없는 상황인 만큼 입지여건이 뛰어난

지역에는 투자수요가 몰려 여전히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LTV와 DTI가 8월부터 재조정되는 것도 변수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주택 금융정책은 건전성 관리 및 강화기조인데 경제는 좋지 않아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기준금리를 한두차례 낮추거나 양적완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 시장상황은 이를 변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매매시장, 지역별 양극화 가능성**

총선 이후로 미뤄졌던 분양물량이 남은 2분기 동안 집중 공급된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총선 이후부터 6월까지 총 12만 5239기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2분기(10만2262가구)보다 22.5% 증가한 수준이다. 수도권에는 지난해(5만15583가구)보다 많은 7만4867기구가 공급된다.

서울에는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총 6894기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870가구)보다 76.2% 늘어난 수치다. /이성주 기자



**프로야구도 모바일로**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장동현, www.sktelecom.com)이 본격적인 프로야구 시즌을 맞아 15일부터 동영상 특화 요금제 band 플레이팩의 일 제공 데이터량을 1GB에서 2GB로 두 배 확대한다고 밝혔다.

## 올 한국경제 '2.4%성장' 그쳐

### LG경제연, 수출·내수 부진... 고용증가세 둔화 구매력 감소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과 국민소득(GNI)이 메르스로 위축됐던 지난해보다 못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5일 LG경제연구원은 2016년 경제전망 국내외경제, 성장률 지난해보다 하락 보고서 등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4%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장률은 지난해 발표한 전망치인 2.6%보다 0.2p 낮아진 수치다.

수출과 내수가 함께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세계교역의 부진과 함께 수출이 전년과 비교해 8%줄어들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출이 부진하면서 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이로 인해 임금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은 물론 고용 증가세 역시 낮아지면서 구매력도 함께 감소한다.

주택경기기 상승세도 멈추며 건설투자

증가세도 꺾일 것으로 보인다.

건설경기가 하락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도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서비스 산업 고용수요 둔화와 함께 취업자 증가수 역시 20만명대로 낮아지며 저성장·저유가가 겹치며 소비자물가상승률 역시 1%내외에 머물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평균 1180원 수준의 약세가 예상된다.

GNI는 2만7200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2만7340달러 수준에서 130달러(0.5%)줄어들어 액수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경제정책 방향은 단기부양보다 장기 성장 잠재력 제고에 맞출 필요가 있다"며 "신성장 사업분야나 고령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진수 기자

## 카카오페이지 3년만에 안정적인 성과 거둬

카카오의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 '카카오페이지'가 서비스 3년 만에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카카오페이지는 2013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콘텐츠 부족과 이용률 저조로 어려움을 겪었다. 콘텐츠를 돈을 주고 사겠다는 낮은 인식도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웹툰·판타지 소설 등 콘텐츠 확대와 수요 증가 등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지가 출시 3년 동안 누적 가입자 832만명, 누적 열람 건수 60억건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지 이용자들의 유료 콘텐츠 구매 금액은 2015년 한 해에만 500억원을 넘어섰다. 참여하는 파트너사는 1128개에 달한다.

지난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배 성장한 190억원을 기록했고, 하루 최고 매출은 3억8000만원에 이른다. 누적 매출 1억원을 돌파한 작품은 143개, 매출 10억원 이상 작품도 4개에 이른다.

일일 이용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콘텐츠를 구매하는 구매자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4.8배 성장했다. 1분기 하루 평균 콘텐츠 열람 횟수는 1800만회다. /이진수 기자

## 통신3사 직영점, 5월부터 매주 일요일 휴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직영점은 5월부터 매주 일요일 영업을 하지 않는다.

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CA)는 이같은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상생방안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직영점의 주말 휴무 확대, 우수 유통점 선발·지원 등이 골자다.

통신사 직영점의 주말(일요일) 휴무 확대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한 달에 2일만 쉬던 것을 매주(일요일) 휴무함으로써 중소 유통점들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통신 3사는 KAIT와 공동으로 건전한 이동통신 시장질서 확립과 유통점의 불·편법 행위 근절을 위한 시장 자율 정화 활동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통신 3사는 이를 위해 실제 단말기 구매채증을 통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판매점에 대해 1주일간 단말기를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진수 기자

## SK하이닉스, 서버용 NVMe SSD 출시

SK하이닉스가 2세대(36년) 3D낸드플래시를 적용한 서버용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를 공개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중국 선전에서 열린 인텔 개발자 회의(IDF)에 참석해 2세대 3D 낸드플래시와 컨트롤러를 기반으로 한 서버용 NVMe(불휘발성 메모리 익스프레스) SSD를 공개했다.

인텔 개발자 회의는 전 세계 개발자와 언론을 대상으로 최신 IT기술을 소개하는 행사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1년에 두차례 진행되는 IDF에서는 인텔의 최신 프로세서 등 주요 제품과 신기술을 만날 수 있다.

SK하이닉스가 이번에 공개한 제품은 3D낸드와 컨트롤러 기반의 1TB(테라바이트)급 NVMe SSD 제품이다. 폼팩터(From Factor)가 M.2인 이 제품은 최근 고객 인증을 마치고 공급에 들어갔다.

PCIe 3세대 4레인(PCIe Gen 3x4)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해 초당 연속 읽기·쓰기 속도 1800MB(메가바이트)/770MB와 임의 읽기·쓰기 속도 16만 IOPS(초당 입출력 동작)/3만 IOPS를 각각 구현했다. /이진수 기자

총동 평가 결과 별 5개 획득

### 신형 스파크 호주서 최고 안전성

지난달 내수시장 자동차 판매 1위를 기록하며 탁월한 제품성과 상품성을 확인 받고 있는 신형 스파크(Spark)가 호주 신차 안전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하며 해외 시장에서도 진가를 입증했다.

쉐보레 신형 스파크(현지 판매명 Holden Spark)는 호주 자동차 안전성 평가 기관이 시행한 2016 호주 NCAP(Australian New Car Assessment Program) 테스트 결과 최고안전 등급인 별 5개를 획득하며 탁월한 안전성을 공인 받았다.

쉐보레 스파크는 전 세계 140개국 이상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약 5년의 기간을 통해 개발된 글로벌 경차로 세계 각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GM의 첨단 안전 기술들이 대거 적용됐다.

경차 최초로 차체의 71.7%에 이르는 광범위한 부위에 고정력 및 초고강력 강판을 적용한 스파크는 차체 중량의 최대 4배 하중까지 견딜 수 있도록 루프 강성을 대폭 강화했으며, 운전석 동반석 에어백 및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을 전 트림 기본시용으로 적용했다. 특히, 스파크는 동급 최초로 적용된 전방 충돌 경고(Forward Collision Alert), 차선 이탈 경고(Lane Departure Warning), 사각 지대 경고(Side Blind Spot Alert) 시스템 등 프리미엄 예방 안전 사양을 적용, 중형차급에서나 볼 수 있는 전방위 안전장치로 무장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